

북스

Books

유언장을 남긴 채... 산티아고서 '자신'을 찾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서영은 지음

소설가 서영은은 지난 2008년 40일 동안 산티아고 길을 걸었다. 12.3kg의 배낭을 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던 때, 그녀의 나이는 66세였다.

노 소설가는 왜 길을 떠났을까. 그 길에서 얻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800km, 산티아고 길을 묵묵히 걷는 이들의 좌표는 딱 하나다. 먼저 간 이들이, 길 위를 걸었던 봉사자들이 그려 놓은 '노란 화살표'. 사람들은 그 화살표를 따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을 들여다본다.

서씨가 산티아고 순례기를 담은 책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를 펴냈다.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게 하나의 트랜드가 된 지 오래다. 그 길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담은 책도 이미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서 씨의 이번 책은 여타의 순례기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유언장을 써놓고 길 위에 오른 소설가가 써내려간 글은 신산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 속에서 잉태된 흔적들과 여행길에서 얻은 깨달음이 융화되면서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책에 허구적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나는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었고, 그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서 나를 벗어 던졌다.'라는 글에서 밝혔듯, 소설가는 이 책을 기억하는 게 바로 '김동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2008년 어느날, 한 신문사의 소설 공모 심사에 참석했던 저자는 문득 적당히 사회적 지위를 즐기며 살았던 자신을 본다. '작가의 길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는 자각을 하고 그녀는 '고독하라, 죽을 만큼 고독하라'는 말을 새기고 산티아고로 떠난다. '차타'라는 예명으로 등장하는, 나이많은 여제자와 길을 떠난 소설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홀로 남겨져 길을 잃게 돼 두려움에 빠지고, 며칠을 끄덕거리고 하며 길을 걷는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오비에도의 한 카페에서 팝송 'Sweet Caroline'을 듣고 오래된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책은 솔직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털너털했던 기억'들도 다 털어놓고, 그녀와 뗄 수 없는 인물 '김동리'와의 사연도 곳곳에 등장한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게 바로 '김동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미 아내가 있는 30년 연상의 '거목'을 만나 나눴던 사랑. 그의 아내였던 소설



66세의 나이에 자신을 찾아 산티아고로 떠났던 소설가 서영은.

가 손소회가 죽은 후, 정식으로 세번째 아내가 됐지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을 버린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삶.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김동리의 유품과 문화자료를 기증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소설가는 그 곳에서 절대자를 만나길 갈망했고, 거기서 접했던 성스러운 경험도 실려 있다.

그밖에 '책 속의 문'에서는 침낭, 잠, 집 등 보통의 사물들에 대한 저자의 깊은 이야기는 또 다른 울림을 준다. '먼 그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서씨는 소설집 '사막을 걷는 집', '타인의 우물', 산문집 '내 사랑이 너를 붙잡지 못했어도' 등을 펴냈다.

(문학동네·1만3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19 참여 대학생이 '4월 혁명통사' 쓰다



4·19 혁명 당시 대학생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홍영유(72)씨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권에 달하는 '4월혁명 통사'를 펴냈다.

고려대 법대 3학년 때 4·19를 몸소 체험한 홍씨는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교생들의 의거부터 그해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일련의 사건을 각종 기록과 현장 사람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저자 홍씨가 직접 출판사를 만들고 자비를 들여 펴낸 책은 한국어학, 동양학 과목이 개설된 세계 각국의 대학도서관 150곳과 국내 대학,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천지창조·각권 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불편한 경제학

세일러 지음

지난 2008년 말 우리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함께 환율 폭등을 겪으며 모두가 '경제위기'에 대해 걱정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미 달러 환율은 1120원대로 안정되고 892까지 곤두박질치던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1700선을 넘어섬에 소비자들의 공포 달했던 지갑도 열리고 있다고 한다. 이제 경제 위기는 끝났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었다고 자급이라도 빨리 주식과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긴다. 정말 이런 얘기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지난해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경제독해'로 경제위기의 논리적인 원인분석과 향후 경제동향을 정확히

중산층·서민이 살려면 집에 '외환보유고' 쌓아라

진단했던 세일러(저자의 필명)는 '불편한 경제학'을 통해 "이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다"고 단언한다. 수많은 사례와 도표를 철저히 분석한 그가 내린 진단이다.

저자는 통념과 단순 예측이 아니라 경제의 원리와 자본주의 경제의 지난 역사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사회제도의 예기가 거짓말인 이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만의 명쾌한 해설로 풀었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원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생존대책' 등 제도권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제기한다.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황과 IMF 사태를 능가하는 환란,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살맛없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남미의 지난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면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는 또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집집마다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는 일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각 가계의 외화예금통장에 외환보유고를 쌓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가계를 위해서 지켜주는 보험 역할을 해주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외환보유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즈덤하우스·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영수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은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알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유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임무	800만원
동산동	22,000㎡	전단	102만원
나주산포	4,469㎡ (1,352)	조경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현단지구	37억원	3,300만원	65억원
동림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100억원
현단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편리하신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광산구 우산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대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일동 준공임대지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대가 22억원
- ▶광산구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대가 6억 7천만원
 - 개발공사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장 적합
- ▶마북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가철 시험실 뒤면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대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대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동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대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매대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남평 토지매매

- 풍림동, 개화관리지역, 2차선 도로질, 잡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대가 2억9천만원

건물매매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상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대가 12억 5천만원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비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대가 7억 8천만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오창동	대1587, 건2406	4295㎡	22억7천	6층근린시설
대동동	대271, 건672	397㎡	19억	원형
지산동	대4942, 건300	2094㎡	7억3천	세라믹편성
지산동	대2671, 건287	1297㎡	19억	제일아파트
산포동	대214, 건738	594㎡	39억	상가/점점
유동	대214, 건496	594㎡	39억	상가/점점
산포동	대214, 건738	594㎡	39억	상가/점점
산포동	대553, 건2865	1938㎡	59억	5층사무나스기
광림동	대224, 건484	397㎡	2억7천	3층점점
광림동	대116, 건3965	13497㎡	60억	3층상가/점점
매곡동	대862, 건984	1294㎡	89억	4층상가/점점
송촌동	대229, 건564	594㎡	39억	4층고층아파트
문흥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산포동	대198, 건357	294㎡	2억	2층점점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 전문가과정' 수강생모집 정원 50명(15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